

## 2기 GTX, 현장 소통 행보로 본격 시동

- 28일부터 GTX 신설·연장 노선 지자체(5개 권역) 대상 설명회  
... 업계 설명회도 별도 개최하여 GTX 사업에 대한 업계의 관심과 참여 독려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와 한국교통연구원(원장 오재학)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 토론회(‘출퇴근 30분 시대’, ‘교통격차 해소’, 1.25)에서 2기 GTX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후속 절차로, GTX 신설·연장 노선이 지나가는 지자체와 건설 업계를 대상으로 현장 소통에 나선다.
  - 2기 GTX 발표 이후 지자체, 건설업계 등에서 많은 문의가 있었던 만큼,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요 정책 방향을 조속히 공유하여 지자체와 민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, 원활한 추진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.
- 먼저, 지자체 설명회는 2기 GTX 노선이 경유하는 지자체 중 2월 28일 인천 및 김포·부천 등 경기 서북부 권역을 대상으로 첫 번째 설명회를 개최하고, 상반기 중 서울·경기 및 충청·강원권을 포함하여 총 5차례, ‘찾아가는 릴레이 설명회\*’를 개최할 계획이다.
  - \* (1차) 인천·경기 서북부 (2.28), (2차) 경기 남부·충청 (3차) 경기 동북부 (4차) 경기 동남부·강원 (5차) 서울 등 지자체 공무원 대상 릴레이 설명회 진행 예정
  - 설명회에서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2기 GTX 노선안과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, GTX가 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GTX 노선과 연계한 거점 개발, 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발, 연계 교통망 구축 등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한 사항들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.
- 한편,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('25) 이후 민간 제안 방식도 병행할 계획인 만큼, 건설사 및 설계·엔지니어링 업계 등을 대상으로 GTX 설명회도 별도 개최할 계획이다.

- 업계 설명회에서는 2기 GTX 노선에 대해 민간의 창의성을 더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며, 이를 통해 민간 제안 사업 추진에 대한 업계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“2기 GTX 발표 이후, 지자체와 민간업계에서 많은 문의와 관심을 보여 주신 만큼, 이번 설명회가 그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부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”면서,
  - “현장 설명회 후에도 GTX 관련 지자체,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, 2기 GTX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광역급행철도신속개통기획단	책임자	단 장	이경석 (044-201-4166)
		담당자	기획팀장	황세은 (044-201-4161)
		담당자	사무관	진영민 (044-201-4162)
		담당자	주무관	김지현 (044-201-4163)
협조 부서	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	책임자	본부장	이 호 (044-211-3116)
		담당자	부연구위원	김정인 (044-211-3341)

